

월간 PIGHEAD LAB



#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 31호

## 2025.2



X\_ 그 곳에 가고싶다 : 부루즈(Bourges)

아홉번째 원고

김희진\_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열여덟번째 원고

오종원\_ 가난은 예술가의 미덕이 아니다

스물아홉번째 원고

김가영\_ 사라진다, 남김없이

일곱번째 원고

고마니\_ 행복민턴 과일클럽

두번째 원고

이채연\_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2

스물일곱번째 원고

## 그 곳에 가고싶다 : 부루즈(Bourges)



X

작가 &amp; 전시기획자

부루즈는 유명한 성당, 유네스코가 지정한 늪지대, 프랑스의 음악축제로 유명하다. 하지만 난 늘 그렇게 얘기하듯 오늘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부루즈를 여기에 말해보고자 한다.

2010년 봄 부루즈의 유명한 미디어 페스티벌 ‘방디마쥬(Bandits-Mages)’에 학생 작가로 참여하여 퍼포먼스를 하였고 미대를 방문했었다. 당시 내가 하룻밤 머물렀던 숙소는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단지 기억이 나는 건 오전에 일어나서 복도를 통과하는 데 맨 몸매 이불만 걸친 외국 여자와 마주친 것이었다.

마치 이안 맥그리거와 카메론 디아즈가 주연한 1997년 영화 ‘A life less ordinary’에서의 한 장면처럼 기억된다. 외국 여자는 영화에서 카메론 디아즈가 맨몸매 이불로 둘러싸고 섹시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화장실이 급해 이불만 걸치고 있었다. 내 옆 방에서 파티남과 잠을 자다 아침에 튀어나온 것이다. 늘 예술계에서 보는 사람 중 한 타입인 “도도녀”였다.

내가 부루즈 국립 미대에 편입을 한 것은 당시 물루즈 시립 미대에 영화를 강의하는 얀 보베(Yann Beauvais) 교수 때문이었다. 얀은 게이였고 파리에서 매우 유명한 실험영화 제작자이자 전문 비평가였다. 게이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에도 민감했는데 나의 여성 인권과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부루즈 미대에 가서 나탈리 마농과 같이 토론해 보라는 것이 얀의 권

유였다. 방디 마쥬 전시 후 부루즈 국립 미대 면접때 난 내가 제작한 예술 비디오를 보여줬다. 당시 활발히 전시하고 작업해서 보여줄게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내 작업은 어떤 예술을 만들지 나의 형태를 찾아가는 초기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난 심지어 나탈리 마농에 대한 관심도 전혀없었다.

부루즈에 편입 후 3년 동안 이 도시는 나에겐 여러 힘겨운 일을 가져다 줬다. 학교 생활과 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외국인으로 재판에 서기까지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 특히 3년 동안 인간의 이기심과 두 얼굴, 검열과 편견 등을 철저히 경험했다. 또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우리를 검열한다는 것도 경험했다. 이는 내국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발생된다고 느꼈다.

내 소송이 마무리 되었을 때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 사실 다행이면서도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할만큼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지만, 프랑스의 부조리는 결코 내가 싸울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당시 학교에 친절한 직원 분은 나에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조리를 봤기에...” 라고 말을 하며 자기가 프랑스 사회에서 더 이상의 도전을 안하거나 저항을 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처음에 나의 피해 트라우마를 잊고 정의 실현, 여성 인권 옹호라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과장이 커질지 몰랐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기대치 않았던 타인이었다. 오히려 주변 한국 지인이나 한국 친구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를 만나며 법정에서 서기까지 총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학교에서는 심한 경쟁으로 내가 겪은 일을 속으로 삭히며 당당하게 살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대사관도 이미 도와줄 의향이 없었기에 이 일로 난 애국심이란 감정을 없었다. 하지만 학교 프랑스 친구들 중 나의 사건을 통해 자기도 폭행 피해자로서 부조리를 겪은 일을

토로하면서 나에게 다가왔고 이를 통해 난 맞서 싸워야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범인을 찾을 수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범인을 나타났을 때 한 프랑스 경찰관은 “신이 도운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인을 보호한다. 상대는 프랑스 인이고 나는 한국인이었다. 결국 나는 이겼지만 그의 형벌은 낮았고 또한 재판에 넘겨진 후 나의 변호사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녀를 상대로 싸워야했다. 당시 나의 건강은 나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머리털이 하나씩 빠지면서 쇠약해져갔었다. 그리고 승소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도 나의 변호사가 의심했다는 사실이 수 년동안 나에게 도덕적 배신감으로 남았다. 내 주변 지인 중 한 명은 “변호사는 돈 밖에 몰라...”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녀의 돈 욕심을 가리려 한 행동과 특히 나같은 외국인에게 프랑스가 승소를 안겨줬으면 뭘 더바라나 마지막 말은 사실 나의 가슴에 오랫동안 칼로 박혔다.

그렇다. 프랑스는 그래도 외국인 여성인 나에게 승소를 준 나라이다. 한국은 오늘날도 아직 불가능할 것이다. 당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내가 오로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당시 나의 자존감뿐이었다.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정신 싸움에 육체가 거이 망가졌지만 파리에 서 살면서 프랑스의 느린 법정 시스템에 프랑스 인도 항소를 5년 10년씩 기다리는 것을 보며 결국 내가 결코 차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위로했다. 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난 당시 부루즈에 오지 않았으면 겪을 일도 아니라고 느꼈지만 소송은 철저하게 사회적 시선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지를 가르쳐줬다. 나의 진술을 허술하게 듣는 프랑스 경찰을 학교 친구가 프랑스의 진정한 허술함이라고 토로했지만 당시 내가 진정한 약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프랑스 북아프리카인의 통합 문제를 진지하게 경험했다. 허술한 경찰은 잘못 된 범인으로 아랍 출신 프랑스 남자를 데려왔고 검찰 신문을 받은 후 그는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경찰 출두 한 주 토요일 밤 시내 근처에 아시아 여자친구와 견고 있는 프랑

스인을 밤에 친구들과 무차별하게 때렸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부루즈에서 사는 내내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았다. 심지어 술과 마약 파티도 가지 않았다. 답답하면 파리에 가서 늘 시간을 보냈다.

4년이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내가 배운 여러 사회적 시선과 인간의 복잡성은 훗날 내가 한국 회사에서 유럽과 미국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유용하게 작용했다.

부루즈에서 깨달은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그룹화’였다. 난 부루즈의 도시 안에서 여러 다양한 프랑스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했다. 안이 말한 나탈리 마농교수도 편입 후 일 년 뒤 만나게 되었다. 나탈리는 나를 처음에 레즈비언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한 다음부터는 나를 절대 예술 프로젝트에 끼주지 않았다. 황당하지만 성적 소수층도 소수 층이니 엘리트 클럽문화와 이게 뭐가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의 각 소수층은 살아남기 위해 동질화를 하고 부르디유가 말하는 “구별짓기(distinction)”를 한다. 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기에 그녀에게 솔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탈리는 날 결코 분류할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았고 특히 나에게서 아시아 여성은 “미국과 유럽 진보 페미니스트 역사를 잘 모를 것” 라는 편견, “서양 철학을 잘 아니?” 라는 것이 빗나가는 걸 봤다. 내가 미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L 월드” 를 보거나 “퀴어 에즈포크” 를 시청하고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후크스(Bell Hooks)” 책을 읽은 유일한 학생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프랑스 여학생은 프랑스 여성이 진보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프랑스 애들은 내가 부담되서 주변에 거의 사라져버렸다. 내가 그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이 싫은 애들이 대다수였다. 예술대에 서로가 튀려고 하는 애들이 워낙 많았기에 이미 프랑스 애들끼리도 서로 싫어하고 있었다. 나는 쿨하게 넘어가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면 나도 맞받아쳐서 대응해줘서 기이하게 나에게 이성적 관심있는 프랑스 레즈비언이 있었고 나를 싫어하는 프랑스 게이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연”으로 만난 사이라서 코로나 이후 가끔 연락을 이주고 받는다. 그리고 나탈리 마농이 자궁암으로 세

상을 뜬 것도 알고 있다.

평생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이라서 그녀를 늘 잊지않고 있다.

내 친구이자 나의 훌륭한 스스인 이브 텡레(Yves Tenret)는 훗 날 나의 소송 스토리를 그의 책에 각색해서 썼고 한국까지 책을 보냈다. 그의 책에서 나를 본따 만든 등장 인물은 ‘박 윤 (Park Yun)’ 이었다. 이브는 나에게 측은지심을 느낀 몇 안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책을 읽으며 그가 날 얼마나 비참하게 봤는지를 느꼈지만 사실 박 윤이 파리에서 워낙 비참한 존재로 나와서 이 일로 이브와 대판 메일로 싸우고 수 년간 연락을 안했었다. 심지어 프랑스 친구 중 한 명 “이게 너니?” 란 말까지 했다. 난 책의 주인공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었다. 내가 파리에서 살 때 정말 힘들게 소송을 끝내고 방향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수 년이 지나 내가 다시 파리를 방문하고 재회를 했을 때 나를 자신의 라디오 팟캐스트에 초대하며 빚을 갚았다. 그는 이제 파리에서 은퇴하고 자식도 다 키우고 와이프와 여유롭게 화가로 잘 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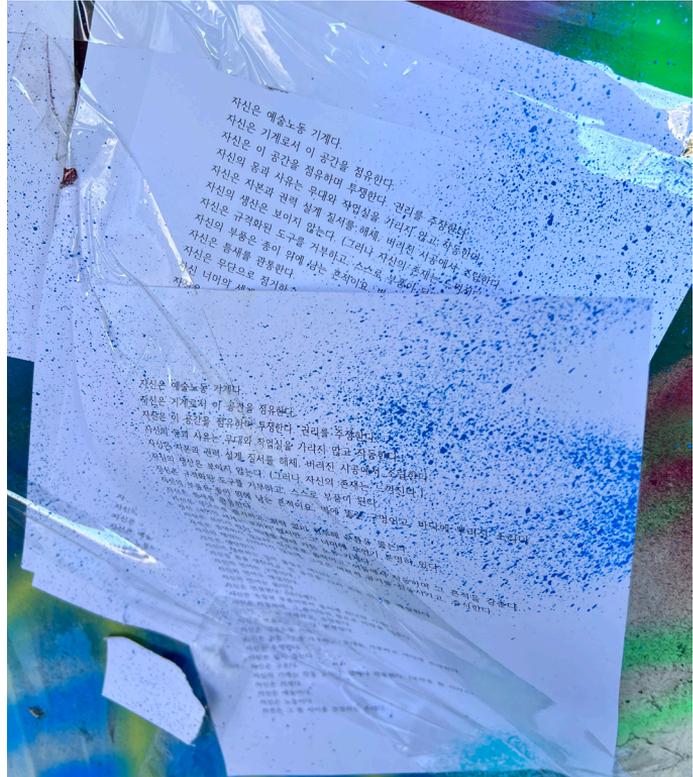
내가 부루즈에서 겪은 추락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며 나의 세계에 더 큰 깊이를 가져왔다. 부루즈는 결국 차별이란 것을 내 힘으로만 극복할 수 없고 예술가가 순수함으로만 사회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훌륭한 교훈을 줬다. 부루즈는 결국 “인간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절실히 해주며 나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우리는 늘상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은 나를 기대한다. 예술가와 연예인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인정”을 원한다. 하지만 안 만큼 본다고 발전은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야지 이뤄지는 것 같다. 오늘날 난 숙명처럼 도시 “부루즈”에서 나의 테두리를 넘게 되는 경험을 한 거라고 기억한다. 🐷



김희진  
노동자

#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기계로서 이 공간을 점유한다.  
 자신은 이 공간을 점유하며 투쟁한다. 권리를 주장한다.  
 자신의 몸과 사유는 무대의 작업실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한다.  
 자신은 자본과 권의 삼각 질서를 해체, 파괴된 지점에서 저항한다.  
 자신은 창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증명된다.  
 자신은 규격화된 도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통제를 좋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무단으로 걸터앉는다.  
 자신 너마의 새...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기계로서 이 공간을 점유한다.  
 자신은 이 공간을 점유하며 투쟁한다. 권리를 주장한다.  
 자신의 몸과 사유는 무대의 작업실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한다.  
 자신은 자본과 권의 삼각 질서를 해체, 파괴된 지점에서 저항한다.  
 자신은 창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증명된다.  
 자신은 규격화된 도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통제를 좋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무단으로 걸터앉는다.  
 자신 너마의 새...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기계로서 이 공간을 점유한다.  
 자신은 이 공간을 점유하며 투쟁한다. 권리를 주장한다.  
 자신의 몸과 사유는 무대의 작업실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한다.  
 자신은 자본과 권의 삼각 질서를 해체, 파괴된 지점에서 저항한다.  
 자신은 창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증명된다.  
 자신은 규격화된 도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통제를 좋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창조한다.  
 자신은 무단으로 걸터앉는다.  
 자신 너마의 새...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의 몸과 사유는 무대와 작업실을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 자신은 자본과 권력 설계 질서를 해체, 버려진 시공에서 조립한다. 자신의 생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느껴진다.) 자신은 규격화된 도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부품이 된다. 자신의 부품은 종이 위에 남는 흔적이요, 벽에 뚫린 구멍이고, 바닥에 흩뿌려진 소리다. 자신은 틈새를 관통한다. 자신은 무단으로 점거하고, 허락 없이 침투해 문틈을 뚫는다. 자신 너머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 분명히 있다. 자신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가는 노동 기계다. 자신은 중단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움직이고, 어둠에서 작동하며 그 흔적을 감춘다. 자신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공기를 진동시키고, 증식한다. 자신은 생산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물질은 아니다. 자신은 틈을 생산하고, 빈 공간을, 다시 쓰는 언어를 배설한다. 자신의 언어는 구멍이다. 자신의 언어도 배설이다. 자신의 언어는 몸이다. 자신은 연결된다. (어디에?) 자신은 독립된 부품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계다. 자신은 작동하며, 그 움직임의 합으로 바람을 만든다. 자신은 스스로 해체하고, 조립한다. 자신은 변화하는 구조다. 변형된다.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스튜디오를 거부하고, 무대도 거부하고 어디에 존재한다. 자신의 기계는 작동 중이다. 언제나 작동한다. 자신은 기계다. 자신은 예술이다. 자신은 노동이다. 자신은 그 틈 사이를 관장하는 존재다.

‘무한’은 어떻게든 누구들에게 인식되고, (그들 사이에서) 일정 이상의 공통된 개념적 인식을 얻으며 그 자체로 통용되고 있다. 대개 그것은 암묵적인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편의상 적당한 수준에서 유효한 방법으로 논리에 걸쳐 있다. 하지만 그것의 난해함을 핑계로 직관에 멈춘 수준에서 결정한 뒤 사용하면서 갖는 죄책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숨겨진 형식은 말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기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편,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이미지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지가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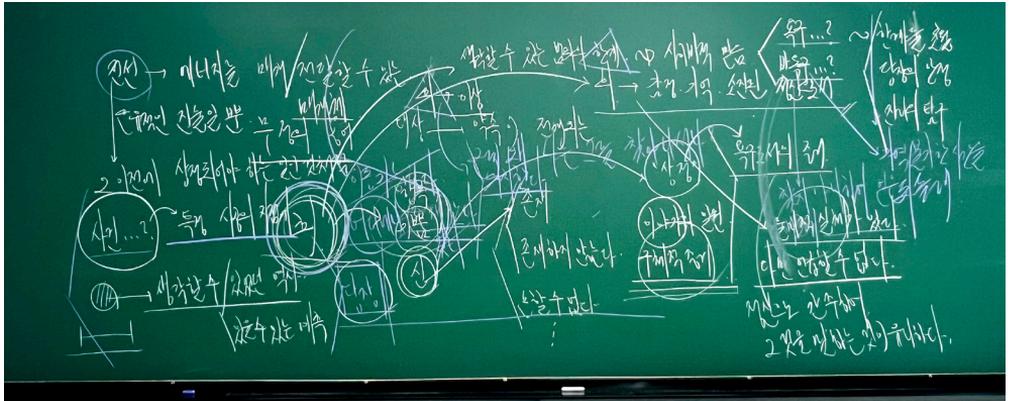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지에 기대어 틈을 좁히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걸려 넘어진다. (물론 넘어진 이가 상처를 털고 틈을 메우기도 한다. 그것이 '연대'인 것.) 그걸 알면서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일은 공동체의 생존을 저해하는 일.

어떻게든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현실을 외면한 채 데카당스를 좇는양 살기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결국 책임감을 저버리고자 하는 모르는 척하는 아해의 초상은 아니었는가.

외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내게 가장 중요한 형식이 된 지금, 하나씩 책임져야한다. 자본주의적 가치 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소외된 자신을 나 자신이 대상화하고, 통제를 하나씩 벗기는 일, 또 그로 말미암은 연대를 불러야 한다.



악마는 천사의 목덜미를 잡고, 천사는 악마의 뺨을 쥐었다. 천사가 날개를 찢어 악마의 몸 속에 심었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전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증오나 꿈꾸는 모순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서로를 따라잡느라 바빴다. 이것은 어찌면 서둘러 말해야 했던 사랑의 본질일지도 모른다고 선언한다. 하나가 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서로를 망가뜨려 지운다. 천사는 악마가 되고, 악마는 천사가 되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러므로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며, 구조 속에서 희생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처절하게 양가적인 운명을 요구하여 결국 어딘가 종속된 의지를 구조 자체로 만든다.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창조하면서 본래의 이상을 보존해야만 한다. 천사는 악마를 구원하려 했고, 악마는 천사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들은 언젠가부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를 지속하고 있다. 







오종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 가난은 예술가의 미덕이 아니다

트럼프가 짚어준 미국주식 답안지	
키워드	주목 배경
AI/ 반도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AI와 반도체는 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
방산	군사력 재건 및 국방예산 대폭증액 공약
전통에너지	친환경에너지정책 후퇴 및 전통에너지산업 활성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미중 금융 경쟁에서의 우위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대응
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수혜 기대
중소형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덜 민감 법인세율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 M&A활성화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 부자들> 콘텐츠 중 한 장면

나는 반 고흐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얼마전에도 누군가 반 고흐전 티켓이 생겼다길래 같이 보러 갔지만 여전히 호감은 아니었다. 특히 <불멸의 화가>라는 부제를 달며 반어법적으로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며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있었다.(전시는 물론 별로였다.)

가난과 생활고가 예술가에게 어떤 과업이나 숙명처럼 여겨지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예술가의 삶과 창조물이 비극적 서사의 주인공 마냥 더욱 각광을 받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나는 반 고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에 예술적 깊어치도 물론 있겠지만, 비참한 죽음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 고흐가 있다 생각도 해본다. 물론 그러한 삶이 아무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과 가난이 연결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현상을 보는 게 싫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가난과 예술을 같은 맥락에 놓으며, 자신의 삶 어느 한쪽을 반 고흐 같은 이들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뭐 사실 이것 자체가 착각이나 오만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의 당신이 분명 당대의 반 고흐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그보다 더 진보적이고 뛰어난 기법을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고흐의 초기작 혹은 연습작을 보면 그렇게 천부적인 실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발전과 교육의 확대,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가 등장한 이때에, 당신은 당대의 반 고흐보다는 훨씬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하는 것과 역사에 남는 것은 결코 별개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간 사실을 그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모 유명 중견 배우가 힘들었던 시절 밥 대신 커피믹스를 먹으며 버텨왔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참이다. 예술은 가난을 불러일으키지만, 언젠가 그 가난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내생각은 이렇다. 가난은 절대 미덕이 될 수 없다. 가난 그 자체는 결코 낭만이 될 수 없으며 그 가난이 당신의 창작을 고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난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나도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부는 평등하지 않으며 내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삶의 유지는 버겁다. 길

을 가다보면 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가난은 일종의 현상이며 어떤 죄나 책임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문제는 가난으로 인한 행동들에서 나온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회피나 해탈이 아니라면, 수중에 돈을 구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 나는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체로 타인의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한 젊은 작가가 있다. 나는 이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이)가 제법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가진 창작에 대한 열망이 어느정도 진심임을 느끼고 있다. 아마 주변의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불편한 지점들은 넘겨줄 만하였고 넘겨주려 하였다.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나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그래 처음은 어렵고 고민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기에 빌려주었고 약간 잊을만할 때쯤 감사 인사와 함께 돌려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되었다. 나는 이것이 언젠가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차라리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빌려라. 이런 작은 돈(몇 만원에서 십 여 만원)의 빌림이 반복되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알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얼마 안되어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가 왔다. 당시 나는 크게 두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저런,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면 이 돈 몇 만원이 없어서, 내가 모진 소리를 했음에도 또 빌리려 하였가. 그 다음으로, 이 친구가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결국 또 이것이 반복되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빌리면 본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인가?

잠깐 새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싶다. 무엇이 예술가를 예술가로 보이게끔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의 작품에 가치를 매기는 것일까?

나는, 예술가와 그 작품에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바로 '예술가의 캐릭터' 라고 생각한다.

이미지나 품격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무슨 청렴해라 겸손해라 이런 뻔한 말이 아니다. 예술가와 예술 작품은 대중의 인식 밖에 존재해야 하고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인식의 밖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 인식 안에서 파악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예술가만이 아니다. 연예인이던 인플루언서이던 그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의 관심을 요하는 콘텐츠는 그렇다. 사소한 과정들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일반인의 세계를 뛰어넘는 장대한 어떤 지점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채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갑과 을이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권리 행사에 협조해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물론 채무 관계라는 게 빛나는 비전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너무나 절대적인 상황에서 인류애적인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만원 짜리 채무 관계가 쌓이는 것은 별개이다.

지금 몰가로 2인 기준 한 번의 외식비 정도의 금액.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치도 안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것을 점차 익숙한 듯 요청하는 그의 행동에서 나는 동정과 연민이 아닌 그가 삶에 가질 열정에 의심을 품게 된다. 당연히 그것은 그의 창작태도에 대한 의심과도 연결이 된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작물과 창작자의 관계는 별개이지 않는가. 그의 인간적 신용이 낮다고 하여 작품적 가치 또한 낮을 것은 아니라고. 맞다. 카라바조는 살인자였다. 일설에는 방탕하고 망나니였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살아있을 적,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이들 덕분에 죄에서 도피하여 창작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예술계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 못한다. 꼭 먼 과거만 아니더라도, 사람은 별로라도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이렇게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능력이 지금 당장 그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지도 모르겠고, 그의 능력이 주변의 이들을 행복하게(혹은 만족하게) 만들어 주는 지도 모르겠다. 좀더 쉽게 말하면, 그의 작업이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그의 작업을 애타게 찾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심플하다.

그의 창작물은 활용도가 높지 않고 가치를 존중해주기 어렵다. 당장의 지금은 말이다.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나는 가난 그 자체로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은 현상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부득이한 현상 속에서 잘나고 못나고 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술적 재능과 환경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누군가는 언젠가 인정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체로 창작품이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까지는 그의 이미지, 삶과 창작에 대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속된 표현으로 가오가 있어야 한다. 가오가 없는 예술이란 것 만큼 처량하기 그지 없는 것이 없다.

글을 쓰며 생각해보니,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SNS나 메스미디어에서 예술로 인한 가난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는 최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가난한 예술가라는 캐릭터가 은근히 흔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예술가라 함은 뭔가 독특하기만 할 뿐 환경이 나빠지는 않은 그런 이들로 등장한다. 가령 <더 글로리>의 사라라는 캐릭터만 하여도 해외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부잣집 자제로 나오고, <오징어게임2>에서 랩퍼로 나오는 타노스라는 캐릭터도 극중 다른 이들과는 달리 절절한 가난과는 거리가 있다.

말한 것처럼 SNS상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과거에는, 삶의 고난과 무게감을 짧은 글귀로 풀어내는 것이 한 스타일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다. 싸이월드 다이어리가 그랬고 페이스북북도 그런 지점이 있었다. 고백컨데 나 역시 꽤나 민망할 법한 글들을 남겼었는데, 당시의 청년들에게는 그래 뭐 술한잔 하고 푸념할 수도 있지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 주연 배우 비가 “술 한잔 했습니다”라며 민망할 법한 SNS 글을 남긴 것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멈추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힘들다, 돈이나 기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지가 꽤 되었다. 요 한동안 유행하는 ‘chill’ 이라던가 ‘쿨병’ 이라는 것처럼 삶

의 자세에, 방식에 있어 굳이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이 촌스럽게 여겨지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이제 예술로 인해 삶은 괴롭다는 것은 제법 촌스러워진 개념이다. 너무 구질구질하고 모양새 떨어진다.

물론 여전히 내 주변에는 그 표현이 심하던 덜하던 삶에 안정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어요 라는 고민도 심심치 않게 듣고, 지금도 스스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들도 많다. 술 한잔 할 때 술값 정도야 내가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들이 예술을 함에 있어 겪는 고난들은 나는 차마 응원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응원조차도 솔직히 영혼이 없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소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늘어가는 근 한 시기, 그런 관계들에 익숙해지다 보니 고통을 푸념하는 것도, 또 그 고통을 달래주려 하는 것도 식상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시 위에서 말했던 채무관계가 있는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그에게 (폰돈은 그만 빌리고) 당신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면 백만원이라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받을 수도 없을 것이란 생각도 했었다. 일단 그의 작품이 그렇게 팔리거나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미래적으로도 어떤 가치를 형성할 것이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은, 그가 겪는 예술로 인한 고민의 무게는 진짜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겪는 고민들이 내가 해온 고민들이었고 그것은 정말 창작이란 것이기 때문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해왔던 것을 멈추게 되거나 잠시 외면해야 할 때의 고민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기에. 그것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김 가 영  
읽고 쓰는 사람

사라진다, 남김없이



이미지 : 김기창 <화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해마다 명절에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아마 조금 쓸쓸해서였겠지만, 해가 지날수록 무어라도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정의 수습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서였다. 명절이네 혼자네 청승 떨어봐야 답이 없다. 나는 답 없는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다.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미술관의 공기는 익숙하고 적어도 그림을 보는 동안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림이 있어주니까, 말하면 누군가는 품, 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각자의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돌아갈 곳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내면의 거대한 적막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번 설에도 나는 혼자 과천에 갔다. 명절 당일에도 물론 미술관에는 관람객이 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점을 꼽자면 혼자인 사람은 언제나 나 혼자라는 것이다. 사실은 받아들일 줄 아는 나이다. 그러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 사실에 익숙해지지는 않는다. 사실 나는 외로움에 찢찢매고 있었다.

우리는 느닷없이 만났다. 운명은 기척이 없다. 내가 진작부터 반해 sns를 온통 도배해 놓은 강렬하고 붉은 꽃이 지금, 여기, 지구에서 제일 외로운 내 앞에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운보 김기창의 화조도다. 사람도 그렇지만 그림이야말로 실제로 만나야 한다. 이 강렬하고 붉은 꽃은 실체가 훨씬 더 짙고 깊은 핏빛이었다. 비단에 채색한 꽃과 잎의 가장자리 섬세하게 번진 테가 연약한 심상을 더했다. 가지 위 발톱을 오므려 앉은 참새 두 마리 태연한 기색이 재미를 더한다. 겹겹이 적층 된 빨강은 이 그림의 뒤가 벽이라는 것을 의심케 한다. 이 붉은 꽃잎을 한 겹씩 떼어내면 그 속은 어디까지일까. 떼어내는 내 손가락 날날이 핏빛으로 물들지 않을까. 사람도 다르지 않지. 인간의 폭은 겨우 한 뼘 남짓이지만 결국 그 심연을 누가 짚 수 있겠는가. 고독의 깊이가 짙고 붉었다.

나는 이 붉은 운명 앞에 서 있다. 영영 지나가지 않을 한 순간을 예감하면서. 그리고 이 순간 또한 속절없이 지나갈 것임을 예감하면서..... 나는 혼자고 지금도 혼자인 사람은 나 혼자지만, 괜찮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혼자인 것은 때로 내 선택으로, 때로는 그저 불가피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던 순간에도 나는 그저 그림 앞에 서 있지 않았던가. 영영 떠나지 않을 것 같던 한 순간도 결국 덧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시퍼렇게 예감하지 않았던가.

미술관을 나서는 내 코트 주머니에는 붉은 꽃잎이 한가득이다. 나는 겹겹이 빨간 잎을 낱알이 따다 모았다. 손가락이 온통 붉었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다음 명절도 적막을 벗 삼아 혼자 그림 앞에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르지. 여전히 외로움에 찢찢매면서. 고독에 허둥대면서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 지나간다. 날아가 버린다.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꽃잎들이 바람에 흩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듯이. 운명처럼. 느닷없이 흘러들어와 기척 없이 사라지는 어떤 운명의 예감처럼 그렇게 모두 지나갈 것이다. 손가락이 온통 붉다. 짙고 붉었던 운명의 증명일까. 그러나 예외는 없다. 모두 사라진다. 남김없이. 🐼

# 행복민턴 과일클럽



고 마 니  
혁 명 가



4년 전 가을, 그를 처음 만난 건 서울 능동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 러닝 모임이었다. 처음 본 그는 180을 훌쩍 뛰어넘는 큰 키와 4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러닝을 함께 했는데 항상 백팩을 짊어지고 러닝을 하는 그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몇 번의 운동을 통해 그 백팩에는 개별 포장된 세척사과가 들어있던 걸 알게 되었다. 과일을 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거의 매번 운동할 때마다 같이 운동한 사과들에게 백팩에서 세척사과를 꺼내서 나눠주는 게 흥미로워서 말을 걸었다. “사과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사과 장수 같습니다”라는 내 물음에 그는 “네 사과 장수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나를 썩 놀라게 했다. 그는 안동에서 꽤 유명한 과수원 집 장손이었던 것이다.

나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과일은 대부분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씻거나 벗겨서 먹는 행위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마치 새우는 맛있지만 새우를 까는 것은 매우 귀찮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내가 이제껏 먹어본 사과와 그 결이 아예 달랐다. 사과와 향은 마치 우리가 시중에서 사 마시던 사과 주스였고 그 달달함은 끈적한 단 맛이 아닌 청량한 단맛 그 자체였다. 길게 말했지만 그의 사과는 정말 맛있다는 얘기이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좋은 형 동생으로 만나온 그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젊고 또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사과 장수였고 나랏일을 하는 보좌관이었으며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컨설턴트이면서 3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동호회를 이끄는 회장이기도 하다. 능력이 참 많고 바쁜 그였기에 만나는 횟수가 뜸 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그가 작년 하반기, 갑자기 뚝뚝지같은 소리를 했다. 본인의 다양성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칠 것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물었으나 그는 기다리라는 소리만 계속할 뿐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무슨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과도 보이고 배드민턴도 보이고 정책과 관련된 책자도 논문도 보였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그 공간을 위해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연락도 뜸 했고 많이 바빠 보였다.



2024년 12월 11일 (수)  
오전 10:29

그리고 이윽고, 그의 연락이 왔다. “그 공간에 너를 초대하마”

강동구 대로변에 위치한 그의 공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고 좋아 보였다. 그냥 사과를 파는 가게였거니 생각했지만 그가 말한 다양성을 담은 간판이

눈에 보였다. ‘행복 민턴, 과일 클럽’ 저건 배드민턴 숭인가 사과 가게 인가?



도무지 이 공간이 무얼 하는 공간인지 감이 오질 않았다. 들어서자마자 보인 군고구마 냄새와 기계를 보곤 군고구마를 파는 것이냐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옆에는 밤이 보여서 군밤도 파는 것이냐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엄청 큰 냉장고가 보여서 사과를 파는 것이냐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배드민턴 채가 보이니 배드민턴 용품을 파는 것이냐라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 안동 소주, 안동 한우 등 갖가지 안동 특산물들이 눈에 보였다. 다만 그것들은 아직 파는 게 아니라고 했다. 간판에 있듯 프리미엄 친환경 먹거리는 결국 안동 특산물을 말한 것으로 보였다. 근데 주방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도저히 가게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었다. 가정집 주방? 같은 느낌의 주방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 꾸며졌다고 했다. 그리고 주방 어귀에 엄청난 술병들이 보였고 이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 중 일부로서 나와 같이 간 후배도 군고구마와 군밤을 간식으로 먹고 맛있는 와인과 한우를 구워 먹고 75인치 TV에 노래방 기계를 연결해서 흠뻑 노래를 부르고 한편에 마련된 침실 공간에 잠들었다.



거창했지만 그의 공간은 사과를 보관, 판매하면서 군고구마와 군밤은(붕어빵은 준비 중) 부업으로 판매하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 찾고 또 그의 지인들이 찾아와 고기를 구워 먹고 눈치 보지 않고 술 먹고 놀 수 있는 아지트였던 것이다. 아주 훌륭한 아지트를 하나 얻게 된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



##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2



이 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2024년 12월호의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1에 이은 두번째 이야기.

남편과 아들, 나 이렇게 9월 22일에서 9월 25일 3박4일로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얼핏 단란한 가족여행처럼 보이지만,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오로지 아들(중1, 13세)을 위한 여행임을 알 수 있다. 식사를 제외한 전 일정이 아들의 취미인 종이접기와 관련된 것이다. 아들이 가고 싶고, 좋아하는 곳으로 일정이 짝 차버린 여행 두번째 이야기.

2일차: 9/23(월)

도쿄대

숙소 근처에 도쿄대가 있어 가보기로 했다. 1877년에 설립된 일본 최고 명문대이다. 학부모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지 않겠는가? 대학교 특유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고 하니까, 당연 가야지. 근처 편의점에서 아침거리를 사 들고 학교로 갔다. 대학생이 된 듯 프레쉬한 기분~ 좋다! 야외의 적당한 벤치를 골라 앉아서 아침을 먹었다. 오래된 건물과 정원이 우리를 둘러 싸고 있다. 문득 여기 건물과 정원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피와 땀, 한이 서려 있겠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국 땅, 특히 일본에서 조상님을 생각하니, 이 장

소가 친근하면서도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리고 곧 대하드라마 같은 상상이 몰려들었다. 내가 앉았던 벤치는 나라 잃은 서러움을 한숨과 유머로 승화하신 조상님이 쉬었던 자리가 아닐까? 여기서 주먹밥을 드시지 않았을까? 힘든 일이 많았겠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셨겠지. 드라마 등장인물 처럼 말이야. 이렇게 뜬금없는 드라마 한편 만들며 아침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돈까스 샌드위치와 우유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우유가 진하고 고소했다. 좋네~좋아! 요시~요시! (よしよし) 하며, 드라마 작가에서 여행자로 돌아갔다 .

도쿄대에서 아들 사진을 찍었다. 사실 명문대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게 부끄러웠지만, 마침 우리가 간 날이 공휴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고 여행 왔으니까 생긴 용기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명문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면, 아들에게 교육적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말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이렇게 명문대 앞이나 유명인과 같이 사진 찍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저러지’ 하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남들이 많이 하는 건 경계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적인 자존심도 있어서다. 대중적인 취향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중시하는 소위 흥대병이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엄마가 되니 남들이 좋다는 것은 해보고 싶어 한다. 안하면 안될 것 같고, 안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만 손해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혼 전 이화여대 앞을 지나가며,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중국 관광객을 보며 별로다~라고 했었다. 엄마가 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과거의 나에게 땀매 하고싶다. 아... 흑흑 지나가던 중국인 가족이 사진 찍어달라고 했다. 열심히 찍어드렸다. 이 집 아이의 학업에 행운이 따르기를 빌어주면서

분위기가 신비롭고 조용했다. 찾아보니 도쿄대는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한다.  
가족과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다.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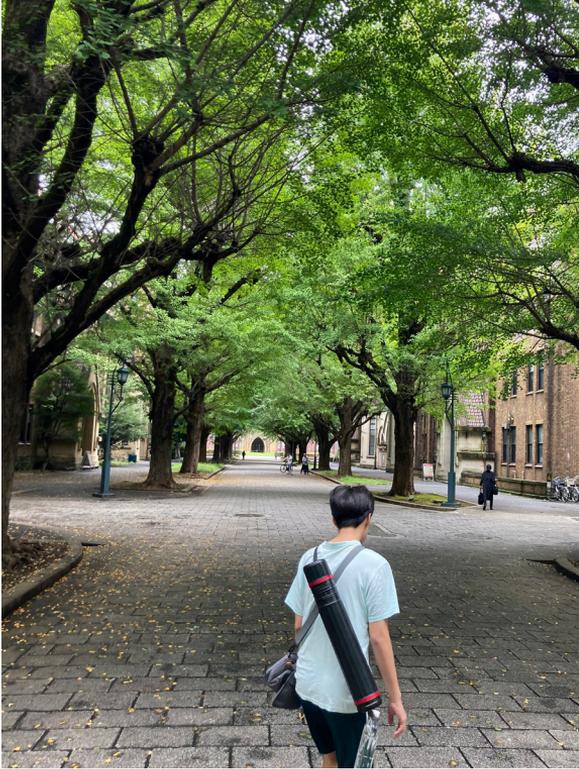


사진4\_도쿄대, 은행나무 가로수사이로 아들이 걷고 있다. 이곳은 가을에 오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장관일 것 같다. 다음 일정이 문구와 종이가게다. 아들은 구입한 종이를 넣을 화지통을 매고 나왔다.

## 이토야 긴자점

긴자에 있는 유명한 대형 문구점이다. 나는 미술재료나 서류를 정리할 파일을 보러 왔고, 아들은 종이류 구경과 샤프 구입을 하러 왔다. 아들은 문구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샤프’에 관심이 많다. 여행 오기 전, 샤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샤프에 관한 책을 정독 했다. 원래는 책을 설렁설렁 대충 읽는데, 관심있는 주제이고 제품구입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진지하게 공부하듯 봤다. 그런 신중한 소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돈을 허투루 막 쓰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책 제목은 <샤프 펜슬에 뭘 짓을 한 거야? (공학 덕후 신정섭의 샤프 펜슬 탐구일지)>이고, 소제목대로 공학 덕후 답게 작은 샤프안에서의 원리와 차이를 각종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수치화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가 직접 그린 삽화가 좋았다. 샤프로 그린 샤프. 샤프의 형태를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샤프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정밀묘사 기법으로 그려 내었다. 얼핏 봤을 때는 흑백사진인가 할 정도로 실물에 가까웠다. 애정하고 잘 아는 것을 그려서 그런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가 그린 것이 정말 대상을 알고 그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초상화에서 인물의 정신세계까지 느껴지도록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것을 전신사조라고 한다. 샤프가 사람은 아니지만, 사물에 대해 작가의 마음을 다하여 그 쓰임과 기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린 것 역시 전신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요즘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미대입시 실기시험으로 정밀묘사를 보는 대학이 있었다. 이 책의 작가님이 만약 그 시험 본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공학박사님이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신 분이 그런 시험을 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지만 말이다.

책에 나온 샤프들이 대부분 일본 제품이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많았고 일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 온 김에 구입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토야에 간 날은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다. 도쿄 중심지의 유명한 문구점이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샤프코너 앞에 진득하게 서서

요리조리 만져보고 써보고 하며 샤프 2개를 골랐다. 일명 유명 브랜드 제품, 메이커다. 아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샤프보다는 있어 보이고, 꽤 높은 가격이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라는 서양 속담처럼 좋은 샤프가 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기를 빌며 사주었다. 이런 일상적인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엄마를 아들은 싫어한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쓸데 없어 보이는 것, 사소한 것에 의미를 주고 찾는 일(미술)을 하는 직업병 같은 것이니까

이토야 근처에 소금빵을 원조로 만든 팥 메종의 긴자점이 있다. 한때 제빵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 가볼 수가 없다. 이 여행이 종이접기 투어이긴 하지만 먹거리를 잘 챙겨야 만족스러운 여행이 된다. 여행이 주는 즐거움 중 7할정도는 음식에서 온다고 본다. 유명 맛집 답게 역시나 빵집 앞에 사람들이 줄 서있다. QR 웨이팅 인데도 줄이 길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남편과 아들을 이토야로 먼저 보내고 줄을 섰다. 핸드폰으로 웨이팅을 등록을 하니 대기시간이 30분 예상 된다고 뜬다. 원래 줄서는 음식점 잘 안가는 편인데... 여행 온 기분에, 냄새도 좋고, 가격은 아주 좋았기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 기본 소금빵이 120엔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약간 넘는다. 맛은 각자의 취향이지만 가격이 좋으니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

이토야 문구점에 갔다 문구점이 엄청 컸다.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 오즈와시

드디어 종이 가게. 일본전통종이-와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여기 오즈와시에 오기 전 다른 종이상점에 갔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종이를 활용한 기념품 샵에 가까워서 대충 둘러 보고만 왔다. 아들의 목적은 오로지 종이접기를 할 수 있는 사각 종이이기 때문이다.

먼저 와시에 대해 말하자면, 닥나무 같은 식물의 외피 아래 부드러운 내피 섬유질로 만드는 종이이다. 우리나라의 한지와 비슷하다. 한지와는 차이점은 와시는 조직이 치밀하고 매끄러워 인쇄성이 좋지만 내구성이 약하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종이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서는 겉으로 보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그래도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와시는 좀 부드럽다. 그리고 염색된 와시의 경우는 중간 채도의 섬세하고 고운 색으로 보인다. 몇 군데 와시가게를 다녀와서 느낀 나의 지극히 단편적인 인상이다.

오즈와시는 대로변 제법 큰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는 종이샵, 2층에는 전시장이 있다. 입지가 좋아 보였고 규모가 크고, 깔끔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종이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전주나 인사동에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 보이는 한지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내가 모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예쁜 전통 종이 가게에 갔다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종일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며 쇼핑했더니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기력회복을 위해 저녁으로 장어 덮밥을 먹기로 했다. 여행 첫날 오리가미 하우스에 가는 길에 본 식당이 괜찮아 보였던 것이 생각나서 가보기로 했다. 구글 지도로 가는 길과 식당정보를 확인해보니, 예약이 필수였고 당일예약은 불가능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글 평점도 좋고 맛집 예감이 팍 오는 식당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보았다. 아쉽게도... 장어요정은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



사진5\_아들이 먹은 장어뎃밥

다.

다시 재빨리 구글 지도로 들어왔다. 장어덮밥을 검색해서 나온 식당 중 적당한 곳을 골라 길을 나섰다. 종일 걷고 길을 찾고 헤메고 다녔으니, 저녁은 평타 정도 되는 식당에 가도 꿀맛으로 먹겠구나 싶었다. 우리 가족의 간택을 받은 식당은 나고야식 장어덮밥(히츠마부시)를 주 메뉴로 하는 곳이 였다. 나고야식 장어덮밥은 덮밥을 4등분해서 3가지 방법으로 한번씩 먹어보고 마지막 1등분은 제일 맛있었던 방법으로 먹는 방식이다.

메뉴에 스페셜이던가? VIP이던가? 아무튼 그런 좋은 말이 붙은 장어덮밥이 있었다.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 써 있는 다른 메뉴와는 달리 메뉴판 한페이지 가득 음식 사진과 정보가 있었다. 보통 장어 덮밥에는 장어 반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데 이 메뉴에는 장어가 2마리가 나오고 반찬 구성도 달랐다. 확실히 좋아 보였다. 식당에서 강력 추천하는 메뉴인 것 같았다. 여행 왔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먹어보자는 생각에 이 덮밥을 아들에게 시켜 주기로 했다. 아들이 우리 가족 중 제일 잘 먹고, 이 여행은 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남편은 장어3/2마리 덮밥, 나는 2/1마리 덮밥으로 정하고 주문을 하려고 보니 메뉴판에서 가격을 찾을 수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구글 식당 후기 찾아보거나 직원에게 문의했을 텐데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어서 그냥 바로 주문을 넣었다. 장어덮밥이 장어덮밥 가격이겠지 뭐~

주문한 덮밥이 나왔다. 아들의 메뉴는 정말 특별해 보였다. 장어 2마리와 내장, 그 위에 식용금이 올라가 있다. 특별해 보이는 음식을 앞에 둔 아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나와 남편은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봐서 좋았고, 특별한 경험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잘 먹고, 식당을 나가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아들이 먹은 그 특별한 장어덮밥은 13,750엔. 우리나라돈으로 13만원 이였다. 하하하하하하! 큰 추억 쌓았네!! 



19년 나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 홍콩에 방문하였다. 한참 뜨거웠던 여름, 약간은 충동적인 방문이었고 뭐 관광 같은 기분도 없이 바로 간 것이었다. 마침 민주화 운동에 따른 위험과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값이 싸도 너무나 싸웠다.

하루종일 시위대를 쫓아다녀보고 이런저런 도시 풍경을 사진으로 찍고 나니 배가 고팠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모든 것이 검색되니 홍콩의 맛집을 검색해본다. 파이브가이즈라는 버거 집이 나타났다. 심지어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버거? 라고 생각하였지만, 햄 버거에 대해 크게 반감이 없던 나이에 별 생각 없이 매장을 들어섰다. 먹고 별로면 소롱포나 먹으러 가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육즙이 꽤 풍부하면서도 심플한 맛을 내포한 버거와 짹짹해서 계속 들어가는 땅콩에 그만 홀딱 반하고 말았다. 북경요리는 못 먹어도 하루에 한번씩 파이브가이즈에 가서 버거를 먹고, 땅콩은 가방속에 한가득 담아와서 하루종일 다람쥐처럼 먹기만 하였다. 견과류를 원래 좋아하는 지라, 분명 콜레스테롤이 높을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맛이였다.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분당을 방문하였을 때, 정말 우연찮게 파이브가이즈를 들리게 되었다. 원래라면 대기열이 많다고 하는데, 평일 오후라 금방 버거와 땅콩을 받을 수 있었다. 꽤 행복한 맛이였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머니 한가득 땅콩을 넣고 집으로 와, 그날 하루 종일 땅콩을 우물거렸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2 / 31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mailto: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가영, 김희진, 고마니, 오종원, X, 이채연